

정유기업, 수입석유 공세 버겁다?

석유협회, 석유 수입기업 매년 2배 성장 ... 2002년 판매량 2700만배럴

2002년 국내 석유 시장에서 수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.8%에 달하는 등 매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, 2002년 휘발유와 경유, 등유, 중유 등 경질유에 대한 수입기업들의 국내 판매량은 2700만배럴로 전체 3억1000만배럴의 8.8%를 차지했다.

수입기업 시장점유율은 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1998년 0.05%에 불과했으나 1999년 1.0%, 2000년 2.3%, 2001년 4.2% 등으로 늘어났다.

나아가 2003년 1월 중 수입기업 시장점유율은 9.1%로 높아져 수입기업들의 시장잠식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.

2002년 수입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휘발유가 6.5%, 등유가 6.6%, 경유 9.9%, 벙커C유 11.3% 등으로 조사됐다.

특히, 2002년 하반기 경유와 벙커C유의 수입기업 점유율은 각각 12.3%와 15.9%에 달하는 등 10%대를 넘어서고 있어 국내 정유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.

대한석유협회는 석유제품 수입관세(7%)와 원유 도입관세(5%)의 차이가 적어 수입기업들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정유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, 기간 산업인 국내 정유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원유 도입관세를 없애는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 02/ 28>